

職業能力開發研究
 第13卷(2), 2010. 8, pp. 47~66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대졸 청년층 하향취업자의 하향취업 상태 변화 요인*

신 선 미** · 민 무 숙***

이 논문은 1)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하향취업 규모를 분석하고, 2) 하향취업에서 벗어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생산하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의 패널자료(1차년도-3차년도)를 활용하였다.

하향취업자의 비율은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나 감소 폭이 크지 않아 하향취업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취업자 중 하향취업자의 비율은 1차년도 조사에서 24.7%, 2차년도 조사에서 22.8%, 3차년도 조사에서 19.0%이다. 하향취업 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대학 졸업 이전의 교육경험 이외에, 하향취업 이후의 교육훈련 요인, 직업경험 요인 등이다. 그 중에서 하향취업에서 탈출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경험에 관련된 변수들인데, 이들 변수는 선행연구들이 밝혀낸 하향취업의 결정요인들과 다르다.

- 주제어: 하향취업, 과잉교육,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투고일: 2010년 6월 4일, 심사일: 7월 14일, 게재확정일: 8월 18일

* 이 논문은 2010년 5월에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최한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eonshin@kwidimail.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msmin@kwidimail.re.kr)

I. 서론

현대적인 공교육체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인력양성이 주로 일터에서 이뤄졌으므로 인력수요와 불일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력양성을 맡고 있는 교육체제와 인력 활용이 이루어지는 일터가 분리되어 있어 양자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하향취업은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인력 양성과 활용 간에 발생하는 불일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향취업에 관한 선행연구들(김주섭, 2005; 박성재·반정호, 2007; 박성준, 2005; 박천수, 2004; 신선미·손유미, 2008; 오호영, 2005; 이찬영, 2008)은 하향취업자의 규모, 하향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향취업의 결과(임금, 직무 만족도, 이직)를 주로 다루었으나, 이 논문은 대졸 청년층에 한정하여 하향취업자의 규모와 하향취업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고등교육이 대중화됨에 따라 청년층의 하향취업이 광범위하게 확산됨과 동시에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청년층의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을 대졸 청년층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선행연구(김주섭, 2005; 이찬영, 2008 등)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하향취업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고되었으며,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하향취업과 달리 청년층의 하향취업은 대졸 인력의 과잉공급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 영향 또한 전 생애에 걸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의 하향취업율은 대략 20% 이상이며 측정방법과 연구대상의 범위에 따라 50%에 이르기도 한다. 다른 연령층과 달리 청년층의 하향취업은 직업세계 진출 이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후 교육훈련이나 직업경험을 축적하여 하향취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대졸 신규 취업자가 상당 기간 동안 하향취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고등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skill)이 마모되어, 적절한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하고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조기에 고용가능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이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경력개발을 거쳐 하향취업에서 벗어나 자신의 교육수준에 적합한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하향취업자의 규모²⁾

1) 교육시스템과 생산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각 요소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교육시스템과 생산시스템 간의 중층결과 상대적 자율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Shin(2002)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상세히 이루어진 바 있다.

2) 하향취업자의 규모에 관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의 범위와 하향취업의 측정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주섭(2005), 박천수(2004), 이찬영(2008)는 직접적 자기평가 방식으로 하향취업을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하향취업자 규모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대상은 이찬영의 경우 18-35세, 김주섭, 박천수의 경우 17-31세이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 대졸 청년층 취업자의 하향취업 비율은 대체로 20% 이상이다. 이찬영은 노동패널조사 3차년도(2000년)와 8차년도(2005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3차년도의 하향취업자 비율은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24.5%,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20.8%였다. 5년이 지난 8차년도에 이 비율이 각각 18.4%와 13.3%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하향취업자가 적지 않았다. 청년패널조사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김주섭(2005)과 박천수(2004)의 연구에서 대졸자의 하향취업 비율은 중퇴자의 교육수준을 어떻게 분류하였는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중퇴자를 졸업자와 분리한 박천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19.8%,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21.9%가 하향취업자였다.

박성준(2005)의 연구는 직업사전에 정의된 직업별 일반적 교육수준(GED)을 기준으로 청년층 하향취업을 측정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1996년과 2002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이고 연구대상의 연령층은 15-29세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졸 청년층의 하향취업 비율은 1996년에 4.0%, 2002년에 8.6%로 매우 낮는데, 전문대 졸업자의 하향취업 비율은 1996년에 56.9%, 2002년에 53.2%이고, 대학교 졸업자의 하향취업 비율은 1996년에 90.3%, 2002년에 42.8%이다³⁾. 직접적 자기평가 방식으로 하향취업을 측정된 연구들에 비해 하향취업 비율이 매우 높다.

신선미·손유미(2008)는 직업별 교육수준 분포를 활용한 통계적 방식, 경력연수별-교육수준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향취업을 측정하는 방식, 근로자의 직접적 자기평가 방식 등 3가지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하향취업 규모를 비교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접적 자기평가 방식으로 측정된 하향취업 비율(22.0%)이 가장 낮다. 이에 비해 직업별 교육수준 분포를 활용한 통계적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 하향취업 비율은 32.7%이고, 경력연수별-교육수준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하향취업 비율이 36.1%이다. 그 밖에 오호영(2005)은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 취업실태조사⁴⁾ 자료로 일반적 교육수준(GED)을 활용하는 방식과 근로자의 직접적 자기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청년층 하향취업의 규모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문대 졸업자의 하향취업률이 GED를 기준으로 할 때 10.1%이나 직접적 자기평가 방식으로 측정하면 20.7%여서 측정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다. 그러나 대학교 졸업자의 하향취업률은 두 가지 방식 모두에서 18.8%로 차이가 없다.

2. 청년층 하향취업의 요인

청년층 하향취업의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과 하향취업의 측정방법이 같아도 통계분석 방법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하향취업의 측정방법은 근로자의 직접적 자기평가 방식, 간접적 자기평가 방식, 직무분석 방식(주로 직업사전을 활용함), 직업별 교육수준 분포를 활용한 통계적 방식, 교육수준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향취업을 채택하는 방식 등이 있다. 각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장단점은 신선미·손유미(2008)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하향취업 대신 학력과잉이란 용어를 사용한 선행연구들도 많지만 하향취업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 3) 1996년과 2002년 사이에 대학교 졸업자의 하향취업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박성준은 경제위기 이후 IT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대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 4) 오호영이 사용한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 취업실태조사(2003년 2월 졸업자 대상)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였으며, 2006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의 모태가 되었던 조사이다.

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혹은 프로빗 회귀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들(김주섭, 2005; 박성재·반정호, 2007; 박성준, 2005; 신선미·손유미, 2008; 오호영, 2005; 이찬영, 2008)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연구에서 투입된 변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첫째, 성별의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다. 전문대졸 이상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신선미·손유미, 오호영)에서는 여성의 하향취업 확률이 높고, 교육수준을 제한하지 않은 연구의 경우 남성의 하향취업 확률이 높거나(박성재·반정호, 박성준) 성별 변수의 영향력이 없다(김주섭, 이찬영).

둘째, 연령이 낮을수록 하향취업 확률이 높다(김주섭, 박성준, 신선미·손유미, 이찬영).

셋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하향취업 확률이 높고(김주섭, 박성준, 신선미·손유미, 이찬영), 인문 계열과 비교하여 자연계열과 예체능계열 출신의 대졸자가 하향취업에 놓일 확률이 크다(신선미·손유미, 오호영). 또한 출신대학의 수능 합격점수가 낮을수록 하향취업 확률이 높다(오호영).

다섯째,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하향취업 확률이 높은 것도 공통적이다(박성재·반정호, 신선미·손유미, 오호영, 이찬영).

여섯째, 산업 변수는 주로 제조업 취업자 대비 서비스업 취업자의 하향취업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서비스업 취업자 전체를 비교한 경우(박성준) 서비스업 취업자의 하향취업 확률이 더 높았고, 서비스업을 중분류 수준으로 나누어 비교한 경우(신선미·손유미, 오호영, 이찬영) 제조업 취업자 대비 음식·숙박업 취업자의 하향취업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직업 변수를 사용한 연구도 세 가지가 있으나 직업분류와 비교대상 기준 직업이 달라 공통적인 연구결과를 찾아내기 어렵다.

3. 하향취업 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에서 하향취업 상태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김주섭(2005)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이 연구는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1차년도 하향취업 비율은 29.7%였고, 1차년도 하향취업자 중 65.8%가 3차년도에 적정 일자리로 이동하였다. 기혼자보다 미혼자, 전문대 졸업자, 1차년도의 근속연수가 긴 근로자가 적정취업으로 이동할 확률이 더 높다.

김주섭의 연구에서 투입된 독립변수의 대부분(성별, 연령, 교육수준,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산업 등)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하향취업의 결정 요인으로 검증된 바 있다. 그런데 하향취업 상태의 변화 요인은 하향취업 결정 요인과 다르다. 예를 들면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는 하향취업의 결정 요인으로 검증된 바 있으나, 김주섭의 연구에서 적정취업으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하향취업을 벗어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하향취업에서 탈출하기 위한 노력들, 예를 들면 추가적인 교육훈련, 직업 이동, 담당 업무의 변화 등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나, 김주섭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이 하향취업 상태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지 못한 것은 하향취업으로 이르는 결정요인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미 하향취업자가 된 이들의 상태 변화나 탈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로부터 분석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기

가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2004년 8월과 2005년 2월에 4년제 일반대학교나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대졸자이다. 사용한 자료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의 2006년(1차년도)에서 2008년(3차년도)까지 패널자료이다⁵⁾. 첫 번째 연구문제인 하향취업자의 규모 분석을 위해서는 <표 1>의 4년제 대학 졸업자 자료 전체를 활용하였다.

<표 1> 대졸 청년층 하향취업자 규모 분석에 활용된 패널조사 표본규모

출신대학 유형	1차년도(2006년)			2차년도(2007년)			3차년도(2008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일반대학	6,944	5,361	12,305	6,862	4,943	11,805	6,690	4,781	11,471
교대	119	518	637	102	503	605	88	484	572
합계	7,063	5,879	12,942	6,964	5,446	12,410	6,778	5,265	12,043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하향취업 상태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1차년도 조사에서 하향취업자이고 3차년도 조사시점에 취업(하향취업, 적정취업, 상향취업 모두 포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료, 분석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1차년도 조사에서 하향취업자는 3,097명이고 그 중에서 3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였고 취업 상태를 유지한 자는 2,257명(일반대학 2,198명, 교대 59명)이다.

2. 분석방법

가. 하향취업의 정의

이 논문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직장(일자리)의 업무내용과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라는 문항을 하향취업 측정도구로 삼았다. 1차년도 조사지는 3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2차와 3차년도 조사지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논문은 두 가지 척도를 3점 척도로 통일하고 “수준이 낮다”에 응답한 경우 하향취업으로, “수준이 알맞다”에 응답한 경우 적정취업으로, “수준이 높다”에 응답한 경우 상향취업으로 정의하였다.

5) 원 자료는 전문대 졸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전문대 졸업자의 하향취업 상태의 변화 요인이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 하향취업 상태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하향취업 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정의

하향취업 상태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데 활용된 독립변수는 4개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인들로 성별, 출신대학의 권역, 어머니의 교육수준, 1차년도 조사당시 가구소득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3가지(고교 중퇴 이하, 고졸, 고등교육기관 졸업 혹은 중퇴)로 구분하였다⁶⁾.

두 번째 그룹은 연구대상의 대학 졸업 이전 교육경험에 관련된 변수들로, 고등학교 유형, 대학 전공 계열, 대학 졸업학점 등급, 출신 대학의 2003년도 수능 합격점수, 출신 대학의 2009년 기준 정규직 취업률이다⁷⁾. 마지막 두 변수는 출신대학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되었다.

세 번째 그룹은 연구대상이 1차년도 하향취업 이후 3차년도 조사시점까지 쌓은 교육훈련에 관련된 변수들로, 직업훈련⁸⁾ 경험 유무, 추가 자격증 획득 유무, 추가 학위 취득 유무, 공무원·공단 시험⁹⁾ 합격 여부로 구성되었다. 직업훈련 경험은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1회 이상 경험이 있는 경우 “있음”으로 처리하였다. 추가 자격증 획득, 추가 학위 취득, 공무원·공단시험 합격 여부는 2차년도와 3차년도에 추가로 획득한 자격증, 학위, 합격증이 있으면 “그렇다”로 처리하였다.

네 번째 그룹은 직업경험에 관련된 변수들로 2차년도와 3차년도 조사에서 직장(일자리) 이동 경험 유무, 직급(직위) 변화 유무, 주된 업무 변화 유무, 종사상 지위 변화 유무, 3차년도 직장 업무 내용의 전공 일치 정도, 1차년도와 3차년도 간 임금변화 방향, 3차년도의 월평균 임금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의 독립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하향취업 결정요인을 규명하는데 활용되었던 변수들과 성격이 유사하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룹의 독립변수들은 이 연구가 하향취업 상태의 변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이다. 이러한 변수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의 표본규모가 크고, 조사내용이 세밀하고 조사연도 간에 종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지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 연구대상의 특징

하향취업의 변화 요인을 분석할 때 사용한 표본 수는 앞에서 언급한 2,257명이다.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집단(274,428명)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추정하면 약 44,500명이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6)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하향취업 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7) 2003년도 수능 합격점수는 사립 대입정보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이며, 정규직 취업률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정보공시센터가 대학 경쟁력 지표로 발표한 자료이다.

8) 직업훈련은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직장연수, 학원수강,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통신강좌, 교양강좌는 포함되고, 단순한 취미활동, 정규학교교육의 학업과 관련된 학원수강, 과외는 제외되었다.

9) 공무원·공단 시험은 행정고시, 사법시험, 외무고시, 기술고시, 7-10급 공무원시험, 교원임용시험, 공단·공사시험을 말한다.

<표 2> 연구대상의 특징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1,015	47.2
	여자	23,533	52.8
	합계	44,548	100.0
출신대학의 권역	서울권	11,699	26.3
	경기권	8,112	18.2
	충청권	7,500	16.8
	경상권	11,852	26.6
	전라권	5,385	12.1
	합계	44,548	100.0
출신 고등학교 유형	인문계고	39,580	89.5
	특수목적고_자립형사립고(자율고)	1,903	4.3
	전문계고	2,754	6.2
	합계	44,237	100.0
대학의 전공계열	인문계열	6,813	15.3
	사회계열	13,274	29.8
	교육계열	2,210	5.0
	공학계열	10,208	22.9
	자연계열	5,604	12.6
	의약계열	1,461	3.3
	예체능 계열	4,979	11.2
	합계	44,548	100.0

주: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라. 가중치 활용

한국고용정보원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 자료 배포 시 조사년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이 논문은 조사년도별 횡단면 가중치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에서 제시되는 사람 수는 정확한 값이 아니고 가중치를 활용한 추정치임을 밝혀둔다.

<표 3> 4년제 대졸자 집단의 조사연도별 가중치에 관한 기술적 통계

(단위: 명)

조사연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차년도	16,563	6.74	30.40	16.57	3.74
2차년도	14,848	6.67	46.11	18.48	4.55
3차년도(횡단면)	13,986	7.09	137.23	19.62	7.49

주: 사례 수에는 미취업자가 포함된다. 1차년도 가중치 평균이 16.57명이므로 1명의 표본이 평균적으로 16-17명의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GOMS 자료 인터넷 사이트 참조.

IV. 연구결과

1. 하향취업자의 규모

신규 대졸 취업자 중에서 하향취업자 수는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어진다. 첫 번째 직장이 1차년도 조사시점의 현 직장과 다른 경우(89,000명), 첫 직장에서 하향취업 비율이 41.8%(37,000명)로 매우 높으나 1차년도의 현 직장에서 하향취업 비율은 24.7%(52,000명)로 낮아졌다. 이는 첫 직장에서 하향취업자들이 알맞은 일자리로 많이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차년도와 3차년도의 하향취업 비율은 점점 낮아져, 각각 22.8%(51,000명), 19.0%(44,000명)이다. 2004년 8월 혹은 2005년 2월 4년제 대졸자 모집단의 규모는 27만 4천명이며 <표 4>의 전체와 모집단 간의 규모 차이(1차년도 첫 직장 제외)만큼 미취업자가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

<표 4> 2005년도 4년제 대학 (일반대, 교대)을 졸업한 취업자의 하향취업 규모와 비율

조사시점	하향취업		적정취업		상향취업		전체	
	명	%	명	%	명	%	명	%
1차년도 첫 직장	37,346	41.8	48,107	53.8	3,918	4.4	89,371	100.0
1차년도 현 직장	52,691	24.7	149,659	70.2	10,847	5.1	213,197	100.0
2차년도 현 직장	51,799	22.8	159,154	70.2	15,739	6.9	226,692	100.0
3차년도 현 직장	44,052	19.0	173,860	74.8	14,450	6.2	232,362	100.0

주: 첫 직장은 조사시점의 현 직장과 다를 경우에만 조사됨. 가중치는 조사년도의 횡단면 가중치를 활용함.

이상의 분석결과는 직접적 자기평가 방식으로 하향취업의 규모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하다. 주목할 점이 있다면 모집단이 274,428명인데 졸업 후 3년 반 이상이 지난 시점에도 취업자의 19%(44,000명)가 하향취업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상당수의 4년제 대졸 청년층에게 하향취업이 장기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5>를 보면 1차년도에 하향취업자가 3차년도에도 하향취업자일 확률이 높다. 1차년도 하향취업자(52,691명) 중 26.1%(13,727명)가 3차년도에도 하향취업 하였고 46.2%(24,341명)가 적정취업 혹은 상향취업으로 이동하였다. 1차년도에 적정 혹은 상향취업자(160,507명)는 9.4%(15,139명)만이 하향취업으로 이동하였다.

<표 5> 1차년도와 3차년도 현 직장 간 하향취업 상태의 변화

1차 현 직장 \ 3차 현 직장	하향취업		적정 or 상향취업		미취업 or 무응답		합계	
	명	%	명	%	명	%	명	%
하향취업	13,727	26.1	15,139	9.4	8,161	13.3	37,027	13.5
적정취업	22,704	43.1	102,528	63.9	22,293	36.4	147,525	53.8
상향취업	1,637	3.1	8,758	5.5	2,026	3.3	12,421	4.5
미취업, 무응답, 조사불능	14,623	27.8	34,082	21.2	28,750	47.0	77,455	28.2
합계	52,691	100.0	160,507	100.0	61,230	100.0	274,428	100.0

주: 1차년도 가중치 적용. 3차년도 현 직장에서 하향취업자 수(37,027명)가 <표 4>의 44,052명과 다른 것은 3차년도에 추적조사가 불가능했던 사례 수(44,112명)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4>의 3차년도 현 직장 통계치는 3차년도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므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수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 하향취업자의 하향취업 상태 변화 요인

가. 분석대상

2005년도 4년제 대졸 취업자 중 1차년도 조사 시점에 하향취업자였고, 3차년도 조사 시점에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계속 하향취업 상태에 있는지 혹은 적정취업이나 상향취업으로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인구는 44,584명이다. 그 중 26,555명(59.6%)은 적정취업으로, 1,961명(4.4%)은 상향취업으로 이동하였고 계속 하향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구는 16,032명(36.0%)이다(3차년도 가중치 적용)¹⁰⁾.

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입력하였다. 종속변수는 하향취업 상태 변화로 적정취업이나 상향취업으로 이동한 경우 1, 하향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0을 부여하였다. 모델1은 첫 번째 그룹의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입력하였고 모델2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을, 모델3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그룹을, 모델4는 4개 그룹의 독립변수들을 모두 동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모델 적합도 테스트 결과는 <표 6> 하단에 요약되어 있다. 모델1부터 모델3의 설명력은 모델4에 비해 훨씬 낮다. 이는 모델4에만 투입된 독립변수, 즉 1차년도 조사 이후 3차년도 조사시점까지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했던 직업경험들이 하향취업 상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10) <표 4>의 3차년도 하향취업자(44,000명) 중 16,000여명은 1차년도에도 하향취업자였고 17,000여명은 1차년도에 적정취업 혹은 상향취업에서 3차년도에 하향취업으로 이동하였다. 나머지 1만여명은 1차조사에서 미취업자였다.

비해 첫 번째 그룹의 배경변인들, 두 번째 그룹의 대학 졸업 이전 교육경험 관련 변인들, 세 번째 그룹의 1차년도 하향취업 이후 3차년도 조사시점까지 쌓은 교육훈련 관련 변인들로는 종속변수의 변량을 최대 4.1% 밖에 설명하지 못하였다. Hosmer & Lemeshow 검정은 모델에 의해 예측된 종속변수 값과 실제 종속변수 값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인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4개의 모델 모두 $p < .001$ 수준에서 양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측정확도는 모델1의 경우 63.6%, 모델2의 경우 64.3%, 모델3의 경우 64.1%, 모델4의 경우 68.2%이다.

Exp(B) 값이 1일 경우 하향취업에서 적정취업 혹은 상향취업으로 이동할 확률이 기준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1보다 클 경우 비교집단이 그 만큼 적정취업 혹은 상향취업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1보다 작을 경우 비교집단이 그 만큼 적정취업 혹은 상향취업으로 이동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란에 기준 집단의 값은 (0)으로 표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인에 따른 하향취업 탈출 확률의 차이 검증 결과를 살펴보자. 모델 4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하향취업에서 탈출할 확률은 1.1배 높다. 출신대학의 권역이 서울권인 집단에 비해 지방인 집단은 하향취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1.3배에서 1.5배 높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집단에 비해 고졸 미만인 집단이 하향취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약간 낮으며(0.9배)¹¹⁾, 어머니가 고등교육을 받은 집단은 하향취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1.5배 높다. 1차년도 가구소득이 300-400만원인 집단과 다른 집단을 비교하면 그보다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이 하향취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더 높고, 400-500만원인 집단은 기준 집단과 차이가 없다.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도 기준 집단에 비해 하향취업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러나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200만원 미만)의 하향취업 탈출 가능성이 가장 크다. 대졸 청년층의 하향취업 결정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하향취업할 확률이 더 높는데, 이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단 하향취업한 경우 하향취업으로부터 탈출할 확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대학 졸업 이전 교육경험에 관한 변인에 따른 하향취업 탈출 확률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출신 고등학교가 인문계고인 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등의 출신이 하향취업을 탈출할 확률이 1.3배 높고, 전문계고등학교 출신도 1.9배 높다. 대학의 전공계열은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사회계열, 교육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출신은 하향취업을 탈출할 확률이 낮고¹²⁾, 반대로 자연계열은 하향취업을 탈출할 확률이 더 높다. 인문계열 출신과 공학계열 출신 간의 차이는 없다¹³⁾.

대학의 졸업학점이 하위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중위권 혹은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하향취업 탈출 확률이 더 높다. 출신대학의 2003년도 수능 합격점수와 2009년도 기준 졸업생 정규직 취업률은 모델2에서 모두 하향취업 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모델3과 모델4에서 새로운 변수들이 추가로 투입되자 출신대학의 2003년도 수능 합격점수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이는 출신대학이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일수록 하향취업한 졸업자들이 하향취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11) 모델 1부터 모델3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모델4에서 직업경험에 관련된 변인들이 함께 투입되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12) 교육계열과 예체능계열 출신의 하향취업 탈출 확률은 모델2와 모델3까지 인문계열 출신과 차이가 없으나, 모델4에서 직업경험에 관련된 변수들을 투입하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3) 모델2와 모델 3에서는 공학계열 출신의 하향취업 탈출 확률이 더 높았으나 모델4에서 직업경험 관련 변수들이 투입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사라졌다.

높으나, 입학성적이 우수한 대학의 졸업생이 하향취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항상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입학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대학의 졸업생이라도 졸업 후 추가적인 자격증 획득과 직업경험에 따라 입학성적이 더 우수한 대학의 졸업생보다 하향취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연구대상이 대학 졸업 이후 경험한 교육훈련에 관련된 변인과 하향취업 탈출 확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의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있는 집단의 하향취업 탈출 확률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졸 청년층의 졸업 후 직업훈련 실태에 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¹⁴⁾. 추가적으로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공무원·공단시험 합격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하향취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더 높다. 추가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모델3에서 하향취업 탈출 확률이 더 낮으나, 모델4에서는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의 직업경험과 관련된 변수들과 하향취업 탈출 확률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조사 후에 직장을 이동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하향취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매우 낮다(0.4배). 직장 이동 경험은 하향취업자가 적정 혹은 상향취업자에 비해 더 많은데, 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향취업에서 탈출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직급(직위)에 변화가 있다던가 3차년도의 직장 업무 내용이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에 하향취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매우 높다. 직급에 변화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1.1배, 3차년도의 업무내용이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2.3배 내지 4.8배나 하향취업 탈출 확률이 높다. 하향취업과 전공분야 취업의 관계는 상식적으로 추측해도 관계가 상당히 긴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선행연구에서 하향취업의 결정요인으로 전공분야 취업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사례를 찾지 못하였다. 임금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1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임금이 하락한 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임금이 변화가 없는 집단과 임금이 상승한 집단 모두 하향탈출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임금이 상승한 집단에서 하향취업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3차년도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하향취업에서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임금상승의 폭이 하향취업으로부터 탈출을 의미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4) 직업훈련 횟수, 훈련의 내용과 기간, 훈련의 목적, 훈련 기관 등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6> 1차년도 하향취업자의 3차년도 하향취업 탈출 여부에 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Exp(B)	P	Exp(B)	P	Exp(B)	P	Exp(B)	P
성별_여자(1)	.843	.000	.862	.000	.883	.000	1.131	.000
출신대학의 권역(서울권=0)		.000		.000		.000		.000
경기도(1)	1.204	.000	1.380	.000	1.387	.000	1.493	.000
충청도(2)	1.067	.073	1.281	.000	1.286	.000	1.323	.000
경상도(3)	1.068	.041	1.210	.000	1.234	.000	1.446	.000
전라도(4)	.992	.849	1.205	.001	1.209	.001	1.428	.000
어머니 교육수준(고졸= 0)		.000		.000		.000		.000
고교중퇴 이하(1)	1.001	.971	.971	.265	.987	.636	.940	.032
고등교육 경험 or 졸업(2)	1.624	.000	1.589	.000	1.576	.000	1.564	.000
1차년도 가구소득 (300~400만원 미만 = 0)		.000		.000		.000		.000
200만원 미만(1)	1.480	.000	1.498	.000	1.473	.000	1.506	.000
200~300만원 미만(2)	1.211	.000	1.154	.000	1.127	.001	1.137	.002
400~500만원 미만(3)	1.149	.001	1.123	.005	1.125	.004	1.087	.062
500만원 이상(4)	1.216	.000	1.193	.000	1.181	.000	1.124	.006
출신고교(인문계고 = 0)				.000		.000		.000
특수목적고_자립형사립고(자율고)(1)			1.451	.000	1.473	.000	1.263	.001
전문계고(2)			1.686	.000	1.688	.000	1.932	.000
대학 전공계열(인문계열 = 0)				.000		.000		.000
사회계열(1)			1.098	.014	1.125	.002	.917	.038
교육계열(2)			.943	.326	.949	.388	.551	.000
공학계열(3)			1.178	.000	1.200	.000	.972	.529
자연계열(4)			1.367	.000	1.371	.000	1.274	.000
의약계열(5)			1.711	.000	1.733	.000	.591	.000
예체능계열(6)			.984	.732	.995	.919	.800	.000
대학졸업성적(하위권 = 0)				.000		.000		.000
중위권(1)			1.701	.000	1.707	.000	1.766	.000
상위권(2)			1.998	.000	1.995	.000	1.671	.000
출신대학의 2003년 수능 합격점수			1.001	.005	1.001	.013	.999	.062
출신대학의 정규직취업률(2009년 기준)			1.011	.000	1.011	.000	1.013	.000
직업훈련경험_있음(1)					.899	.000	.925	.004
추가자격증획득_있음(1)					1.292	.000	1.327	.000
추가학위취득_있음(1)					.683	.000	1.016	.787

<표 계속>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Exp(B)	P	Exp(B)	P	Exp(B)	P	Exp(B)	P	
공무원·공단시험 합격 경험_있음(1)					1.253	.135	1.618	.004	
직장이동경험_있음(1)							.385	.000	
직급(직위)변화_있음(1)							1.134	.000	
주된 업무내용변화_있음(1)							.838	.000	
종사상 지위 변화(상용직에서 변화 없음 = 0)								.000	
임시·일용·무급가족종사자에서 변함없음(1)							.685	.000	
상용직에서 임시·일용·무급가족종사자로 변함(2)							.373	.000	
임시·일용·무급가족종사자에서 상용직으로 변함(3)							.859	.001	
기타(4)							.700	.000	
3차년도 업무내용과 전공일치 (매우)맞지 않다=0								.000	
그런대로 맞다(1)							2.251	.000	
(매우) 잘 맞다(2)							4.788	.000	
1차-3차 간 임금변화(임금하락 = 0)								.000	
임금동일(1)							.519	.000	
임금상승(2)							.705	.000	
3차년도 월평균 소득							1.004	.000	
상수	1,371	.000	.286	.000	.278	.000	.153	.000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Chi-square	374.917		487.792		116.855		4194.667	
	df	11		12		4		12	
	sig.	.000		.000		.000		.000	
모형 요약	-2Log우도	42082.460		41594.667		41477.813		37283.145	
	Nagelkerke R square	.016		.036		.041		.202	
Hosmer & Lemeshow 검정	Chi-square	112.386		225.834		150.071		156.601	
	df	8		8		8		8	
	sig.	.000		.000		.000		.000	
예측정확도(%)	63.6		64.3		64.1		68.2		
N(명)	1,753		1,753		1,753		1,753		

주: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적용.

V. 결론 및 시사점

이 논문은 4년제 대졸 청년층의 하향취업 규모와 하향취업을 벗어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대졸 청년층의 하향취업자 규모를 대략 20% 이상 많게는 50% 정도로 추정하였는데, 이 논문의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즉 2004년 8월과 2005년 2월에 졸업한 4년제 대학 대졸자(모집단 274,428명)의 경우, 2006년 1차 조사에서 52,000여명이 하향취업자였고 이는 조사 시점에서 취업자 수의 24.7%이다. 2차 조사와 3차 조사에서 하향취업자 규모는 각각 51,000여명(취업자의 22.8%)과 44,000여명(취업자의 19.0%)이다.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하향취업자의 수가 적어지지만 졸업 후 3년 반 내지 4년이 지난 시점에도 하향취업자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4년제 대졸 청년층의 하향취업 규모가 취업자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정책적으로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즉, 이미 상당한 정도의 과잉교육으로 인하여 일정규모의 졸업자들은 하향취업상태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 하나이다. 두 번째는 하향취업자의 장기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졸업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 실업자 위주의 정책은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향취업으로부터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향취업의 결정 요인과 다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대졸 청년층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하향취업 확률이 높지만, 이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하향취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더 높다.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직업(표준직업분류 대분류)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4에 투입해 보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하향취업 확률이 높다고 하였지만, 하향취업으로부터 탈출할 확률은 임시·일용·무급가족종사자에서 상용직으로 이동한 집단보다 계속 상용직에 있던 집단에서 더 높다. 오호영(2005)의 연구는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하향취업 확률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직업경험을 고려하여 하향취업에서 탈출할 확률은 출신대학의 수능 합격점수와 관계가 없다. 즉, 하향취업자가 되느냐는 출신 대학의 수능 합격점수가 중요하나, 일단 하향취업을 한 경우 하향취업으로부터 탈출하는 데에는 출신 대학의 수능 합격점수보다 직업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졸업 후 교육훈련 경험과 직업경험이 하향취업 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사실 그 중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다. 연구결과에서 모델1과 모델2에 비해 모델3의 설명력이 더 높기는 하나 큰 차이가 없고, 직업경험에 관련된 변수들이 투입된 모델4의 설명력이 훨씬 높다. 따라서 4년제 대졸 청년층 하향취업자들이 하향취업으로부터 탈출하는데 교육훈련보다 직업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장 이동 경험이 없고, 1차년도부터 상용직을 유지하면서, 전공분야의 업무내용을 맡거나 직급(직위)의 변화를 가지는 것이 하향취업에서 벗어나는데 유리하다. 이는 대졸 청년층 하향취업자의 인력 활용도를 높이면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에 안착하여 경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학의 취업지원센터 및 이해 당사자들은 학생들에게 전공 관련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나 인턴십 과정을 강화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졸업 후 교육훈련 경험의 설명력

이 낮은 것은 하향취업으로부터 탈출하는데 도움이 될 만큼의 경험을 쌓지 못했기 때문인지 혹은 많은 경험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낮은 것인지 추가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주섭(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2호, 1~29쪽, 한국노동연구원.
- 박성재·반정호(2007). 「청년층의 하향취업 원인과 노동시장 성과」,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4호, 1~28쪽, 한국사회보장학회.
- 박성준(2005). 『청년층의 학력과잉 실태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 박천수(2004). 「청소년의 과잉학력 현상이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취업자를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2004), 제3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논문.
- 신선미·손유미(2008). 「대졸 청년층 하향취업의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1~21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호영(2005). 「과잉교육의 원인과 경제적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3호, 1~37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찬영(2008).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행태」,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1권 제3호, 49~69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Shin, Seon-Mee(2002). 「Le mode de production de la force de travail et les rapports sociaux d'enseignement」, Thèse pour le doctorat, Université de Paris 8.

abstract

Status Change in Downgrade Employment of
Young University Graduates

Seon-Mee Shin

Moo-suk Min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young university graduates escape from the downgrade employment at the early stage of their career. This study analyzed the size and escaping the downgrade employment of young university graduates by using the panel data of ‘Graduates Occupation Mobility Survey(GOMS).’

The rates of the downgrade employment were 24.7%, 22.8%, and 19.0% at the time, each respectively, 18 months, 30 months, and 42 months after their graduation. Various factors affected the escape from the downgrade employments : 1) socio-demographic factors, 2) educational experience factors before their graduation, 3) educational experience and vocational training factors after their graduation, 4) vocational experience factors. Among them vocational experience factors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escaping the downgrade employment. The factors affecting the escape were different from those affecting the downgrade employment, which were found in the previous studies.

Keyword: Downgrade employment, Over-education, Young university graduates school-to-work